氣의 고장 영암－나비의 고장 함평－땅끝 해남

‘지역 관광 활성화’ 손 잡았다

3개군 업무 협약…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공조

氣의 고장 영암군과 나비의 고장 함평군, 최남단 땅끝 해남군이 관광산업의 활력을 위해 공동마케팅 전략에 나섰다.

영암군과 함평군, 해남군은 최근 영암군에서 영암, 해남, 함평군 관광분야 업무 교류협력 협약식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일태 영암군수와 김충식 해남군수, 이석형 함평군수 등 3개군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자치단체는 축제를 비롯한 관광업무에 대한 기획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협력과 관광산업의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3개 군은 국화축제와 단풍축제 개최시기가 비슷하거나 겹쳐있고 지역 역시 맞닿아있는 등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 적극적인 관광업무 공조를 모색하게 됐다.

특히 봄철이면 영암 왕인축제, 함평 나비축제, 해남 산이 매화축제, 가을철이면 국화축제, 단풍축제가 잇달아 펼쳐질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월출산과 국토 최남단 ‘땅끝’을 품고 있어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3개군 실무자들은 상호 축제기간중에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관광 업무를 공조해 왔다. 3개 군은 앞으로 다채로운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상호 정보교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관광업무 교류협력으로 기존 당일코스로 끝나는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는 등 3개군 공동발전과 함께 남도 관광의 중심지이자 메카로 발돋움 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지역에서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영암 왕인 국화축제와 함평 국향대전, 11월 13~15일 해남 단풍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일상 피로 훌훌~ 유유자적 ‘기찬묏길’

영암군 주민들이 월출산에 개설된 7.6㎞길이의 걷기 전용산책로인 ‘기찬묏길’을 따라 걷고 있다. 영암군은 자연그대로의 지형을 살려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제격인 산책로를 조성했다. 〈영암군 제공〉

화순 “올겨울 산불은 없다”

郡, 초동진화 초점 ‘현장조치 매뉴얼’ 수립

화순군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13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 기간동안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9개산 26구간 59.3㎞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37개소 3만380ha를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입산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재난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수립, 산림보호 감시원 27명과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69명 등 100여 명에게 숙지하게 해 비상시에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군은 산불재난 위기대응 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눠 각 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천운산, 용암산, 개천산, 별산, 화학산 등 5개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비행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읍·면 별로 산림 취약지를 돌며 잡풀 등 위험요인을 11월말까지 제거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함 “쏠쏠하네”

광산구, 한달만에 재활용품 287t·884만원 수익

광산구가 재활용품 수거 사각지대인 주택가나 상가의 거점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지 한 달여만에 막대한 양의 수거량과 수익을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구는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이달 초 287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88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단독주택가와 상가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거점지역 377개소에 분리수거함을 마련하고 지난 9월1일부터 본격 운영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분기수거함이 설치되자 주민들은 캔·플라스틱·종이 등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청소를 할 때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리싸이클 핸드카’도 지난달 20일부터 투입돼 공항역~송정초교 앞 등 53개 구간에서만 하루평균 400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스템 등의 운영으로 재활용품 수거 수익이 연 2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청소행정 개선에 재투자하는 명품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담양군, 월동준비 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손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한창 월동준비 중이다.

담양군은 지난 26일부터 가로수 보호를 위해 담양군청 앞에서 금성면 방향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시작으로 해충 포집기(잠복소)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희망근로 참여자와 산림보호 강화요원을 활용해 다음달까지 국도 24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950그루에 대해 잠복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7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관방제림의 보호수에 병해충 일제방제를 실시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사교육비 줄고 내용 좋고”

장성군, 드림스타트 사업 설문 ‘만족도 A+’

장성군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16일 5일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적절성, 향후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2개 이상의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 각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내용은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내용 및 만족도, 자녀양육의 도움정도, 타인에게 추천 및 지속적 참여 여부 등으로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학부모 조사에서는 대상자 95% 이상이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서 앞으로도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만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교육비 절감’과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이라는 대답이 각각 30%를 차지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냐는 설문에 100%가 “그렇다”고 대답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준기